

광주도시공사 맞춤형임대주택 사업 ‘복마전’

청탁 받고 심사 탈락한 부적격 원룸 4채 33억원에 매입 절차도 무시... 전 본부장·언론사 전 대표 등 12명 입건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영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빌라를 11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빌라는 약취가 나고 진·출입이 불편한데다 균열까지 있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사들였다. 이유는 부정청탁 때문이었다. 빌라 소유주 김모(42)씨가 광주의 한 언론사 편집국장 김모(여·50)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김국장은 또 다른 광주의 언론사 이모(52)씨를 통해 광주도시공사 임모(62) 전 사업본부장에게 빌라 매입을 청탁한 것이다. 임 본부장은 담당 팀장과 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가점 20점을 부여해가며 매입하도록 했다. 대가로 김 국장과 이 사장은 건물 소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2013년 청탁을 받고 부적합한 건물을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임 전 본부장 등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5명과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현직 언론인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는 언론사 전 대표와 편집국장의 부탁을 받고 담당 직원에게 약취, 주차장 진·출입 불편, 균열 등 허자가 있는 원룸을 구입하도록 했다. 담당 직원들은 임 전 본부장과 업자의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한 부적격 원룸을 구입했다.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인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기초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국토교통부 시책 사업이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원룸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간지,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고도 내지 않고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건물은 허자로 심사에 통과할 수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임의로 부여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광주도시공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 매입한 건물은 원룸 4채, 33억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70가구 중 150여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돼 공실률이 17%나 됐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두리에 매입을 다수 추진하면서 전체 주택 중 70%를 북구와 광산구에서 매입했고 이 지역의 공실률은 각각 21.9%(392가구 중 86가구)와 22.7%(216가구 중 49가구)에 달했다.

경찰은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부실 원룸을 매입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총당금 5%로 거액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거액의 국비가 낭비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대 폭력조직 ‘범서방파’ 와해

마지막 간부 부두목 검거

국내 최대 폭력조직 ‘범서방파’가 와해됐다. 지난해 범서방파 고문 나모(50)씨가 구속된 데 이어 지난 8일 마지막 남은 간부인 부두목 최모(50)씨가 경찰에 검거됐기 때문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배중이던 범서방파 부두목 최씨를 붙잡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11월 범서방파 150명과 부산 칠성파 80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서 회칼과 각목을 들고 대치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직원들을 모아 사건을 모의하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회칼 대치 사건”은 칠성파 부두목 정모(44)씨와 범서방파 고문 나씨가 사업 문제로 청담동 룬살탕에서 만나 시비가 붙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최씨는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경 경기도 김포시 한 카페에서 몸

싸움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담동 회칼 대치 사건’ 이후 7년 만에 검거된 최씨를 상대로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조직을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랫동안 경찰 수사를 받아온 범서방파는 2013년 두목 김태춘이 사망한 뒤 두목·부두목을 비롯한 간부와 조직원들이 줄줄이 검거돼 사실상 와해됐다. 김태춘의 후계자로 통하던 나씨가 지난해 10월 구속됐고, 지난해에는 또다른 부두목 정모(51)씨가 수배중 마카오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남은 마지막 부두목으로, 이번 최씨의 검거로 남은 범서방파의 간부는 없다”고 전했다. 광주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운 서방파가 재건된 조직인 범서방파는 한때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다.

한편 광주경찰은 범서방파, 무등산파, 신양OB파 등 8개 폭력조직 조직원 3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호별 방문 선거운동 혐의 이용주 의원 불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선거부정 방지법)로 이용주 국회의원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8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34곳의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동행한 전남도의원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인 최모·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김은홍기자 ejkim@

폭행·성추행 선임병 징역형

후임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까지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영환)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후임병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수차례 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까지 가했다”면서 “법정 횡포와 방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선원 사망 사건 재연

11일 오후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에서 진행된 ‘중국 선원 3명 사망 사건’ 실황조사에서 해경대원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 사용 中어선에 ‘함포 사격·선체충격’

정부 단속 강화 대책 마련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시 필요한 경우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폭력사용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

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한해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mm 발진포와 40mm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

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화재로 중국인 선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재연을 실시했다.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에서 진행된 현장 재연은 화재 원인 가능성이 제기된 해경 대원의 섬광탄 투척, 중국인 선원들의 저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선박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들 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는 이날 말게 나올 예정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김용구 첫 공판... “정당한 자문료 받은 것”

검찰 “또 다른 비리 확인” 추가 기소기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공사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을 기소한 뒤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났으며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관공사와 관련해 수수·알선·청탁의 대가로 돈을

변호인은 “S건설로부터 받은 1억 9800여만원은 정당한 신기술 개발 용역 계약에 하고 받은 대금일 뿐”이라며 “광주시가 발주한 관공사와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사업자 선정에 힘 써달라’ 등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청 공무원들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다른 건설사 등의 자문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고 광주시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

협력업체 비리 폭로 협박 역대 가로챈 2명 경찰서형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의 비리를 알

○...11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52)씨와 불구속 입건된 송모(45)씨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중소기업 경영진을 협박해 1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

챈다는 것.

○...이씨와 송씨는 지난 2월께 A씨가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업체 B사가 수년간 하청업체들로부터 백마진을 받아왔다는 정보를 이용해 B사 경영진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는데,

경찰은 “이씨 등이 백마진 비리 기사를 막아야 한다”며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설명. /*광양=김경원기자 kkw@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1522·3396

대표

<p>수익형 빌딩</p> <p>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품덕동 / 10층 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p>	<p>경매</p> <p>가스충전소</p> <p>감정가 12억7천만, 최저가 8억9천만 화순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자동차기 / 3기 6구</p>	<p>경매</p> <p>수익형 상가 빌딩</p> <p>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p> <p>감정가 21억3천만, 최저가 9억6천만</p>	<p>경매</p> <p>토지</p> <p>화순 화순읍 / 대지 932평 / 2종일반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 / 광덕지구 서측 / 8m도로점</p> <p>감정가 16억4천만, 최저가 16억4천만</p>
<p>매매</p> <p>오피스텔</p> <p>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p>	<p>매매</p> <p>상가건물</p> <p>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매매</p> <p>고급레스토랑</p> <p>영암 삼호읍 / 2동 1층 / 대지 3887평 건물 130평 / 삼포교차로 북측</p> <p>감정가 9억 1천만, 최저가 5억1천만</p>	<p>매매</p> <p>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p> <p>해남 화원면 / 입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p> <p>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p>
<p>매매</p> <p>전원주택</p> <p>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매매가 13억</p>		<p>매매</p> <p>전통한옥식 전원주택</p> <p>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p> <p>감정가 3억6천만, 최저가 2억</p>	<p>매매</p> <p>상가</p> <p>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p> <p>매매가 17억</p>
<p>매매</p> <p>숙박시설 부지</p> <p>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매매가 8억5천만</p>		<p>매매</p> <p>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p> <p>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p> <p>매매가 16억</p>	
<p>매매</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p> <p>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p> <p>매매가 5억5천만</p>		<p>매매</p> <p>전원주택</p> <p>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매매가 13억</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입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